

'무주반딧불축제' 성공 개최 박차

군, 종합계획 설명회 열고 축제 추진 방향·운영계획·협력 방안 등 논의

무주군이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종합계획을 공유하고 주민과 함께 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24일 무주읍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사)무주반딧불축제위원회 주관으로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 종합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과 의원, 무주반딧불축제위원회 대의원, 지역 기관·사회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제30회 축제의 추진 방향과 공간 구성, 주요 프로그램, 분야별 운영계획 등을 공유하고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는 '반디의 빛, 세계를 만나다'를 주제로 오는 9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등나

무운동장과 지남공원, 남대천 일원 등 무주군 곳곳에서 열린다.

특히 30주년을 맞아 생태환경축제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축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축제의 핵심 콘텐츠인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비롯해 '1박 2일 생태탐험', '반디 캠핑', '반딧불이 주재관' 등 반딧불이를 중심으로 한 생태·환경 프로그램을 마련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체험과 공연, 문화예술 프로그램, 야간 경관 콘텐츠 등을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축제 첫날인 9월 4일에는 '30주년 기념 특별 전야제'가 열리며, 무주 예체문화관 앞에는 축제 30년의 역사와 성과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아카이브 공간도 조성된다.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를 위한 '3무(無) 축제'도 이어간다. 무주군과 축제위원회는 일화용품과 바가지요금, 안전사고 없는 축제를 목표로 안전·교통·주차·위생·편의시설 등 분야별 현장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글로벌 축제에 걸맞은 외국인 관광객 편의도 확대한다. 다국어 안내를 비롯해 '외국인 전용 반딧불이 신비탐사 버스'와 '글로벌 워터'를 운영하고 '글로벌 푸드존', '글로벌 태권존' 등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콘텐츠도 마련된다.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 숙박업소와 연계해 숙박요금 할인과 객실 업그레이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축제장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한다. 서울·대전·전주 등 13개 지역을 오가는 편의 셔틀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장수군 사회적경제 포럼 현황리 개최

장수군은 장수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나금혜)가 21일 어울림센터에서 '활개 성장하는 사회연대경제, 지역혁신의 주체가 되다!'를 주제로 '제1회 장수군 사회적경제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수군과 장수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윤지웅)과 한국리빙랩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지역 주민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안적 경제모델인 사회연대경제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민·산·학·연·관 협업을 바탕으로

한 리빙랩 기반의 지역혁신 전략을 논의했다.

송위진 한국리빙랩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지역 전환을 위한 사회연대경제의 리빙랩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사회연대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유유미 전주주민협동조합협 상임이사는 '살아있는 실험실, 주민협동회 자조금용의 로드맵과 과제'를 통해 '장수형 자조금용 리빙랩'의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한동송 전주대학교 교수는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향한 전북의 지역혁신 사례와 과제'를 주제로 해외 리빙랩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장수군 실정에 맞게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성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정현 한국사회기치연대기금 전문위원과 서정주 사이임팩트 대표, 한명재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지역 일자리와 주거, 돌봄 등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연대경제 기반의 공동창조형 혁신전략을 모색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안호영 의원과 농공단지 기업간담회 가져

진안군은 지난 22일 홍삼향방 다목적복합센터 1층 회의실에서 안호영 국회의원, 관계부서,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공단지 기업간담회(수도법 개정 관련)'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연장·제2농공단지 기업들이 겪는 수도법 규제 애로를 공유하고, 연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이후에도 제도 적용이 불명확해 발생하는 입주·투자 차



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입법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안군에는 3개 농공단지에 86개 기업, 5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으나 연

장·제2농공단지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부재 등으로 폐수배출공장 신설과 업종변경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신규 구축하는 경우 승인된 처리용량 범위 내에서 공장 신설·업종변경을 허용하도록 규정 적용 확대 또는 법령 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전춘성 군수는 제도적 결함들 해소와 관련 강화를 강조했다. 안호영 의원은 단계부처 협의 및 법령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군은 기업으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24일 군청 3층 강당에서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민(장애인)체육대회' 준비상황 최종 보고회를 열고 분야별 추진 상황과 남은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진안군 최초 개최 도민체전 만전

전북도민(장애인)체전 준비상황 최종 보고회 열고 종합 점검 나서

진안군은 24일 군청 3층 강당에서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민(장애인)체육대회' 준비상황 최종 보고회를 열고 분야별 추진 상황과 남은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는 실무추진단장인 진안부군수를 비롯해 실과소속면 주무팀장과 진안경찰서, 진안소방서,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개폐회식 및 성화봉송 △교통·주차대책 △안전·의료방역 △자원봉사자 운영 △운오프라인 홍보 △숙박·음식점 위생관리 △환경장비 등 부서별 준비상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진안군은 9월 4일 개회식 당일 현지상황을 고려한 음식가치 교통 통제 및 셔틀버스 운행계획을 마련하고, 행사장 주변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진안로터리에서 생다림, 버스터미널로 이어지는 음식가치 일일 구간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당일 10시부터 통제에 들어가며, 마이산북부 주차장(진안을 단원리 746) 및 학전지구 임시주차장(진안을 군상리 479-24)에서 셔틀버스 운영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할 계획이다.

이경영 부군수는 "진안군에서 최초로 열리는 도민체육대회인 만큼 선수단과 관람객 모두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세밀하게 준비하겠다."며 "전북도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축제이자 진안의 문화·관광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성공적인 대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분야별 사전 리허설과 현장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성공적인 체전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63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전은 2026년 9월 4일부터 8일까지 제20회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전은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각 3일간 진안 일원에서 개최된다.

9월 4일 열리는 도민체전 개회식에는 오마이걸, 10CM, 거미, 손태진 등 인기가수들의 축하공연과 진안군에서 처음 선보이는 드론쇼와 불꽃놀이도 진안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대회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9월 19일에 열리는 장애인체전 개회식에는 인기가수 박서진의 축하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한국새농민 전북도회 한마음 전진대회 열려

장수군은 지난 21일 장수군종합살내체육관에서 도내 새농민 회원들의 화합과 전북 농업의 발전을 다짐하는 '2026 한국새농민 전북특별자치도회 한마음 전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한국새농민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한강희)가 주최하고 장수군회(회장 한동근)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이정우 장수군 부군수, 정상준 군의회 의장, 장정복 전북특별자치도 도의원, 문재용 한국새농민중앙회장을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 새농민 회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는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랑의 쌀 꾸러미 전달식'



을 시작으로 △지역 농업 발전 유공자 표창 △새농민 본상 수상 축하 △30년 활동 공로패 수여 △이달의 새농민'회원 35쌍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장수군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전북 새농민 회원들의 뜻을 담은 '명예회원패'가 최훈식 장수군수에게 전달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 통

장수군,기초생활가점 조성 주민위원회 통합 간담회가져

장수군은 천천면 행복나눔터에서 이주숙 장수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주민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협약사업의 하나로 '기초생활가점조성사업 주민위원회 통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위원회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서면,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등 6개 면 주민위원들은 면별 사업추진 상황과 주요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현안과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도민체전 성공 개최 3대 캠페인 추진

진안군은 '제63회 전북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3대 캠페인 '깨끗한 거리·정직한 가격·따뜻한 한마디'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대회 기간 진안을 방문하는 선수단과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친절함 환대로 지역의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합동점검

무주군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차와 주차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주요 관공지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에 나섰다.

군은 24일부터 25일까지 무주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무주 덕유산리조트와 무주 나들목 만남의광장 등 지역 내 9개 시설의 주차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의 주차 여부와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 사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 주차 방해 행위다. /무주=손흥기 기자

전북의 역사

전주매일 캠페인

호남의 곡창지대를 지키다

완주·진안 응치전투

완주·진안 응치전투(熊峙戰鬪)는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일본군의 전라도 진출을 막기 위해 현재의 전북 완주군 소양면과 진안군 부귀면 경계인 응치(곰티재)에서 벌어진 전투이다.

1592년, 일본군은 금산을 점령한 뒤 전주로 진격하려 했다. 이에 김계군수 정담, 나주판관 이복남, 의병장 황박, 해남현감 변응정 등이 관군과 의병을 이끌고 응치에서 방어에 나섰다.

응치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치열하게 저항했지만, 일본군의 대규모 공격으로 정담 등 많은 장수와 병사들이 전사했다.

전투 직후 일본군이 잠시 고개를 점령했으나, 이어진 안덕원 전투 등에서 조선군이 반격하면서 결국 일본군은 금산으로 퇴각했다.

이 전투는 호남을 방어해 전주와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전투로 평가된다.

현재 응치전적은 2022년 12월 30일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으며,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일원, 총 23만2,329㎡(완주 13만3,000㎡, 진안 9만9,300㎡) 규모다.

**본 배경은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